

〈토론문〉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심포지엄'의 논평

김 광 식*

논평자는 이 심포지엄의 주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를 탐구치 않아 논평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러나 5년전과 금년 봄에 제주불교와 연관된 논문 2편을 쓸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법정사 항일자료를 잠시 살펴보았는바 그 정황에서 논평에 임하겠다.

우선 오늘 이 발표의 전체적인 감상을 말하고, 다음으로는 각 개별 주제에 대한 감상을 제시하겠다. 먼저 전체적인 소감은 기존 연구 시각에 대한 반발과 극복이라는 흐름이 있었다. 그는 기존 법정사 항쟁의 시각 고정화를 시킨 일제의 '보천교난'이라는 부정적, 매도적인 시각을 말한다. 그리고 이 분야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한 임혜봉, 안후상의 연구에서 불교중심적인 접근을 강조한 임혜봉의 관점과 이에 반발하면서 보천교의 개입과 제주도민의 항쟁을 지적한 안후상의 관점이 있어 왔다. 요컨대 오늘의 발표는 대략 위의 두가지 관점의 시각과 흐름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보겠다. 다음으로는 기존 관점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보천교에 대한 우호성, 민족성 등 긍정적인 시각이 강하게 개입되어 일부 해석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보천교를 연구한 학자, 증산계열의 종단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면인 것이다. 이는 곧 법정사 항쟁을 연구할 경우에 주의를 요하는 경각심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각 개별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의 내용에서 이견을 갖고 있는 것

* 대각사상연구원

을 중심으로 극히 일부 사례를 제시하겠다. 박찬식선생의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성격>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많이 극복하였는바, 이는 정구용이라는 항쟁의 주역, 판결문을 발굴하고, 분석한 성과이다. 그리하여 항쟁의 진행과정, 추이, 구체적인 활동 등에 대하여 소상한 이해를 할수 있었다. 이는 운동, 항쟁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연구의 정형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수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박선생은 이전 연구에서 이 항쟁을 중문지역의 항일운동(제주도 99, 1996)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오늘도 그 관점이 간간히 배여 있다. 때문에 논평자는 그 관점이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 아니면 그 관점이 수정, 보완된 것인가를 묻고 싶다. 해석은 자유이지만 그 역사성, 고유성, 관행 등이 종합되어야 한다. 1929년 11월의 광주학생운동의 실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을 생각게 해준다.

다음은 <일제하 사회운동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항일운동>을 발표한 조성운 교수의 발표에 대하여 논평을 하겠다. 조 교수의 발표는 당시 종교의 전반적인 지형을 갖고 법정사 문제를 바라보자는 연구인 것으로 파악하고 싶다. 특히 신흥종교라는 관점을 활용하여 법정사 초기 상황을 바라보아 추후 연구 관점의 지평을 넓혀 주었다. 그러나 논평자가 인상깊게 접수한 내용은 1930년대의 제주도에서 나타난 무극대도교는 흑세무민하였는데 반하여, 법정사 항쟁에 관여된 선두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논평자도 조교수의 논지의 흐름과 본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선두교, 무극대도교는 기본적으로 같은 교리, 흐름에 나온 광의의 보천교단이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선두교는 증산의 사후 그의 부인인 고수부를 중심으로 교단 조직을 최초로 가시화 시켰을 당시의 초기 교단의 명칭으로 불러야 한다는 홍범초 선생의 연구결과를 참조하기 바란다. 홍범초 님은 평생을 신흥종교, 보천교를 연구한 학자가 아니겠는가? 이를 유의한다면 1918년 당시에는 선두교계통이 아니고, 그에 반발한 차경석 계열의 태을교인들이 토착적인 제주도민들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고 본다. 물론 20, 30년대에 도 제주도에서는 보천교를 선두교라는 지칭하고, 현재에도 그러면 면이 있지만 말이다. 요컨대 당시 정황과 보천교 교단사의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김창민 교수는 <법정사 항일운동 가담자와 운동의 성격>을 통하여 사례연구, 심층연구라는 기법을 법정사 연구에 도입하였다. 때문에 연구 방법, 고뇌, 정성이

라는 면에서 우리에게 신선한 과장을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평자는 몇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바이다. 우선 호적중초를 발굴, 소개, 분석, 연구하였지만 그 호적 중초에 대한 문헌학적인 측면에서의 기초적인 소개, 연구, 서술이 누락되었다. 김선생 당사자는 다 아는 내용일수 있겠지만 그래도 학술적인 글쓰기에서는 그 정황은 소개해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이런 발표는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닐 때에는 더욱 그러하리라고 본다. 그 호적중초의 제원, 분량, 소재지, 열람의 계기, 그 내용 등등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월평마을의 대상만을 분석하였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되어야 한다. 여타 마을에도 있지만 안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를 묻고 싶다. 이런 점을 제시된 연후에야 김 선생이 제시한 일반화의 내용과 논리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김선생이 분석한 당사자는 12명인바 이는 전체 수형자의 1/6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것으로 전체를 대변한다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호적 중초에 나오는 대상자는 5명이고, 7명은 중초에도 누락되었음도 해석에 어려움을 말한다. 또한 선생은 현지에 생활을 하면서 이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인류학적인 접근인바, 현지조사에서 향한 연구방법, 조사 내용 등도 요약하여 제시해야 온당할줄로 알고 있다.

김정인 선생의 <법정사 항일운동의 민족운동사적 위상>에 대하여 논평을 하겠다. 김선생의 논문은 법정사 항쟁에 대한 접근 시각과 그 성격에 대한 이해를 고양시켜준 연구이다. 특히 1910년대의 민족운동, 종교계 흐름, 3.1운동의 폭력성이라는 전체적인 구도와 이해하에 법정사의 성격을 특징지었다. 그리고 1920년대 이후의 보천교의 연구 결과를 대비시킴으로 인해 법정사 항쟁의 한축인 보천교에 대한 오해 불식을 시도한 것도 특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측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 우선 유교와 불교는 친일이고 개신교는 실력양성운동을 통한 민족운동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이는 기존 연구의 성과에서 나온 것이지만 여기에서 각 종교 간의 편향적인 이해는 주의할 자세임을 언급하고자 한다. 특히 카톨릭은 언급을 회피하였는바 이것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러한 편향적인 시각으로 법정사 항쟁에 임할 경우의 난점이 우려되는 바이다.

다음으로 보천교 교단에서 서술한 『보천교연혁사』에서 법정사 항쟁에 자신들의 교도가 관여된 법정사 항쟁을 언급치 않고, 현성금이 들통난 것만을 기록한

것에 대하여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하였다. 사실 이 내용은 당시 보천교단사, 법정사항쟁에서의 주도권 논쟁의 흐름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요컨대 보천교단이 법정사 항쟁을 자신들의 교단사로 흡수시키지 않았던 본질에 대한 깊은 천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천교를 연구하는 홍범초, 노길상의 연구, 즉 증산종단연합회가 1997년 10월에 펴낸 『일제하 증산종단의 민족운동』의 내용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즉 일제하의 교단사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그 역설이 사실, 진실이었는데에 대해서는 경계를 요한다. 그렇다면 해방이후 교단사, 보천교연구자는 그 점을 왜 강하게 인정치 않고, 어찌보면 일제하 최대의 보천교 민족운동의 사례로 강렬하게 내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도 어려운 과제이다.

이상으로 논평자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 판단을 제시하여 보았다. 논평자도 이 분야에 공부가 깊지 않은 형편에서 논평을 하였기에 일부 지적에서 지나친 지적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기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이 점은 논평자가 후일 이 분야 연구를 할 경우에 화두로 인식할 것이고, 또 다른 연구자들도 함께 이 과제를 풀어 주길 바라는 바이다.